

| 2006 세계 물의 날 기념 심포지움 |

# 시민이 바라는 물



김 태 련 |  
(사)아이코리아 회장  
tealyon@yahoo.co.kr

## 1. 서론

물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불가결하다. 인간은 물 없이 약 1주일 정도 밖에 살 수 없고, 체내의 물을 12% 잃을 때 생명을 잃게 된다. 뿐만 아니라 물은 우리 몸의 약 70%를 구성하고 있는데, 체내에서 잠시도 쉬지 않고 순환하고 있어, 좋은 물을 섭취하는 것은 곧 건강의 기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물은 어떠한가? 그동안 서울시와 수자원공사는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주장해 왔지만, 최근 발표된 팔당호의 수질 평가 결과를 보면, 강원도는 '호수 수질로는 농업용수 수준', 서울시는 '하천수 기준 일급수에 가까운 이급수' 라는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어, 일반인들은 현재 공급되고 있는 수돗물을 좋은 물로 신뢰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국민 1인당 확보된 연간담수량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나라는 현재 물부족 국가에 속해 있어 지속적으로 수자원을 개발하고 물소비량을 줄이지 않을 때 물기근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제 좋은 물을 공급하고, 부족한 수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국민 개개인에게 매우 절박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본 고에서는 (사) 전국주부교실중앙회가 2004년 4월부터 7월에 걸쳐 전국 5,018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돗물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인들의 수돗물에 대한 관심과 수질 안정성에 대한 신뢰, 그리고 수도 요금이나 현재 수도 시설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고,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인 물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방향에 대해 모색하기로 하겠다.

## 2. 본론

### 2.1 수돗물에 대한 일반적 인식

본 조사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1%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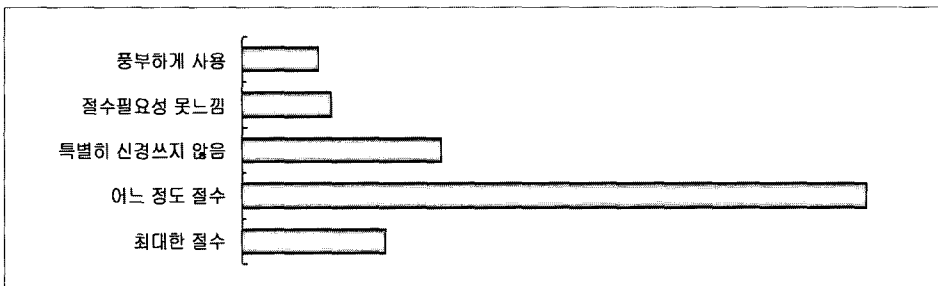


그림 1. 일상생활에서의 물 사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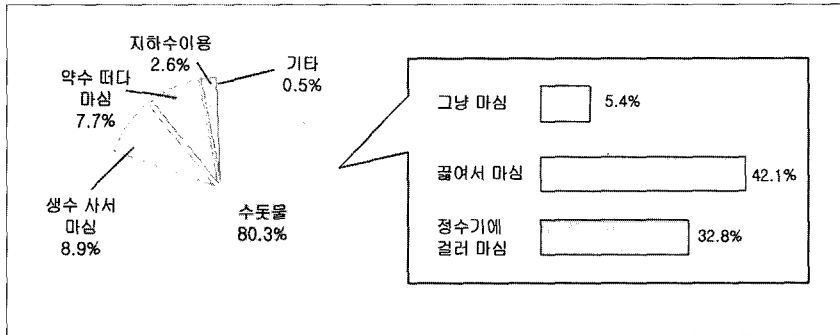


그림 2. 가정에서 마시는 물의 종류

수돗물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답하였고,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군으로 분류된 사실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1.5%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일반인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상 생활에서 절수를 실천하고 있다는 응답이 67.8%에 그치고, 응답자의 48.4%가 1인당 물 사용량이 부족한 이유를 개인이 물을 낭비하는 생활 습관이라고 응답한 결과에 기초해 볼 때, 물 절약을 실천하는 행동 습관이 상당히 부족함을 알 수 있다.

## 2.2 우리나라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가정에서 마시는 물의 종류에 관한 질문에서 80.3%가 수돗물을 마시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그대로 마시는 경우는 5.4%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끓여서 마시거나 정수기에 걸러서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정수장에서 실시하는 수질 검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4.1%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대체로 인지도가 높지만, 정부에서 발표하는 수돗물의 수질분석 결과를 신뢰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과반수 이상(54.6%)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은 수돗물 오염의 가장 큰 원인으로 상수원의 오염, 상수도 처리 시설 및 배관의 노후화, 물 저장 탱크의 오염, 정수 기술의 부족, 정수 시설의 운영상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수돗물 처리 시설의 고급화(31.9%),

수질 검사 항목의 확대와 수질 검사 기준의 강화(30.1%), 수돗물 정수과정 및 처리과정의 완전 공개(24.7%), 신뢰성 있는 기관 및 국제기구에서 수돗물의 안정성 공인(11.7%) 등이 요구된다고 인식하였다.

미래에 안전하고 안정적인 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적 수준에서는 세제 사용을 자제하여 오염을 줄이고(31.3%), 물을 최대한 아끼며(31.1%), 아이들에게 물의 중요성을 교육하며(12.4%), 하천이나 호수의 정화 활동에 적극 참여할 뿐 아니라(11.2%), 한번 사용한 물을 재활용하는 것(10.5%)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수준에서는 시설(댐 증설, 수도관 교체, 물 저장시설, 하수처리장 등) 증대를 위한 투자 확대(27%), 오염원 차단을 위한 상수원 보호 구역의 철저한 관리 및 단속 활동을 통한 처벌 강화(25.3%), 안전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새로운 기술 및 연구 개발(25.1%), 물 절약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강화(22.2%) 등을 취해야 할 주요 과제로 인식하였다.

## 2.3 수도 요금 및 수도 시설에 대한 인지도

현행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싸다는 의견이 29%, 적당하다는 의견이 43.8%, 비싼 편이라는 입장이 27.2%로 나타났고, 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도 64.3%로 나타나,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돗물을 민간업체와 함

깨 공급하게 될 경우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수도물이 향상될 것이라는 응답은 23.3%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 수도물 관리가 정부 주도로 엄격하고 책임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도물의 수원에 대해서는 65.8%가 막연히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도물의 해당 수도시설에 대해서도 78.8%가 막연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해당 수원이나 수도 시설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 감독을 촉구하여야 될 것으로 보인다.

### 3. 결론 및 제언

이상에서 살펴본 조사 결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 물 부족에 대한 심각성은 인지하면서도 일상 생활에서의 물 절약 실천의지는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수도물 사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도물을 그대로 마시고 있지 않았고, 셋째, 수도물에 대한 불신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후된 수도관 교체, 상수원 오염의 차단과 단속, 수도물 처리기술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넷째, 앞으로 안전한 수도물 사용을 위해서 수질 오염 행위의 자제와 물절약을 생활화해야 함을 잘 알고 있으며, 다섯째, 수도물의 보다 나은 안정적인 공급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도요금 인상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여섯째, 물공급 체계에 대한 인지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은 한정된 자원인데,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무턱대고 공급을 늘릴 수 없다. 실상 자연 생태 환경과 문화 유산 등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무시한 수자원 개발이 낳은 폐해를 실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염을 자제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천 의지나 행동 간의 괴리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수준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 공급 체계나 오염 경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 요령과 참여 등을 구체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수도물 = 먹는 물’이라는 공식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시민의 입장에서 수도물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노력을 더욱 경주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우리 정부도 수자원에 대한 인식을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생존을 위한 물을 넘어서, 물과 더불어 물을 즐길 수 있는 대상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 양재천과 청계천 복원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레저 자원으로 개발된 물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좋은 삶의 공간으로서의 물’의 가치에 공감하게 한다. 물이 레저 자원으로 개발될 때, 사람들은 수질을 보호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을 실감할 수 있고, 물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삶의 지혜를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이 바라는 물은 바로 생명의 물, 그리고 문화의 물이다. 